

위한 과제 21세기의 축산업육국을



정길생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입춘을 지나면서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무르익고 있지만, 얼어 붙은 축산인들의 가슴에 봄이 올 기미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불황에서 오는 어려움쯤은 인내로서 감내한다 하더라도 축산물 시장의 실질적인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있어서 조차 이렇다할 대책하나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현실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하기 때문이다.

도리켜 보면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또 대외 개방에 의해 우리 축산이 겪게될 어려움도 예상 못했던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도 누누히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까지 자신있게 내놓을수 있는 대책하나 수립하지 못한 것은 축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만사지탄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난날의 실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미구에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첫째,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축산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축산물 시장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많은 축산인들은 축산의 장래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축산농가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의 현실적 발로이다.

축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산업은 장래가 없다고 믿기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소비자의 본질을 망각한 단견의 소치이다. 우리의 국민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의 저력은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조만간 정상적인 성장의 궤도위에 다시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장은 축산식품에 대한 수요를 신장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1/2내지는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 축산인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축산업을 포기한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21세기 초반에 가서 폭증하는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며, 국민전체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축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국민전체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축산인의 역할은 한층더 무겁고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이 우리 축산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높은 자부심과 사명의식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과감하게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간의 무한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상황속에서 우리 축산이 살아 남아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감한 기술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이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고능력 신품종을 창출하고 이를 생산현장에서 활용해야 한다. 고가의 신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물공학적 첨단기법을 가축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심각한 인력난과 고임금을 극복하는 것도 신품종 창출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작업과 관리기술의 자동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작업과 관리기술의 자동화는 기계공학이나 건축공학은 물론이요 이들과 전자공학의 접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의 합리화이다. 경영의 합리화는 경영의 정보화를 전제로 한다. 국내는 물론이요 전 세계에 걸쳐 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이용등에 관한 최신의 기술 정보와 자료를 폭넓고 신속하게 접할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축산도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주변으로부터 환영받는 환경 친화형 축산을 실현하여야 한다.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와 약취의 처리문제는 이미 축산경영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축가들에게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영적 심리적 압박은 국내외적 환경의식의 고조와 더불어 금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광대한 토지를 활용하는 구미제국과는 달리 협소한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가축을 기르는 우리나라의 축산은 처음부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양축 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축산업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적 악영향을 빠른속도로 심화시켰다.

양축규모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국민경제의 성장에 수반되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조시키기 마련이다. 이제 이웃간의 인정이나 국내 축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가축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약취가 안방을 침입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참아줄 국민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범 세계적인 환경의식의 고조와 더불어 점차

심화될 것이다. 국민이 혐오하는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축분뇨와 악취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은 물론이요,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보전하는데에 기여할수 있는 환경친화형 축산을 실현하는 일은 21세기에 있어서 축산업의 존립과 성장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넷째, 다양화, 고급화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에 부합하는 축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축산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축산업의 존립기반은 바로 축산물의 소비자들 이기 때문이다. 예견되는 경제수준의 향상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더욱 고급화하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고급화 다양화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외래 축산물이 국내시장에 범람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생산자들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와 수요에 순응하는 길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산인들은 지금과 같은 단일 품목의 다량생산이라는 획일적 생산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수요자의 소비형태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수요에 부응할수 있는 다양한 품목의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정비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축산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신뢰야말로 우리 축산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21세기를 이끌고 나아갈 유능한 축산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축산을 지망하는 젊은이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그 결과 양축인의 연령이 날로 고령화되고 있어 뜻 있는 축산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있다. 양축규모의 확대는 전업축산인의 수를 감소시키겠지만, 그 대신 지금의 축산인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능한 축산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의 전업 축산인은 수준높은 양축기술은 물론이요, 고도의 정보처리능력과 국제 감각을 겸비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 이상의 경영능력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국내에 있어서도 타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할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축산인들은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각박하다 해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꿈의 실현을 담보해줄 유능한 축산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간 우리의 축산은,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여 왔다. 그 기간동안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먼 장래를 내다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소홀했었다. 오늘날 전면개방을 앞두고 우리 축산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것도 따지고보면 그 책임은 앞을 내다보며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를 발휘하지 못한 우리 축산인들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정부를 탓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축산인들은 전체국민의 건강이 우리손에 달려있다는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21세기에 있어서 축산 선진국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